

“계층별 법회로 가족 모두를 사찰로”

포교원 '내 가족 전법하기' 연찬회 부모·사찰 주지 스님 수고 전제 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 등 주목

불자가 감소하고 신도는 빠르게 고령화하는 반면 사찰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보기 어렵다는 반성 속에서 가족포교로 난제를 풀어보자는 취지의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스님)은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내 가족 전법하기-가족 포교 활성화 방안 포교과제'를 주제로 7차 포교종 책임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에서는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 교수, 서울 성림사 주지 현담스님이 발제하고 서울 금륜사 주지 본각스님, 무안 봉불사 주지 지오스님, 최미선 동련 국장, 이기재 목동 법안정사 부부불자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백도수 교수는 “유대인의 지식 교육을 보면 부모가 자식을 교회에 데려가는 수고를 한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집에 자식을 데려가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불자가 이어질 수 없다”며 가족포교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족법회도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자리 외에도 부부, 부자, 모자, 고부(姑夫婦)법회 등이다. 내용적으로 보면 가족을 위한 기도법회, 이혼가정을 위한 법회, 가족갈등 치유법회, 생일법회,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가족법회, 부모

를 위한 기도법회 등 주제도 다양하다. 법회 때는 법문 외에도 사경, 발 씻어주기 의식, 삼사 순례, 초파일 가족 등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현담스님은 성림사가 가족과 스님이 작은 법당에서 둘러 앉아 이야기하듯 가족법회를 운영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평일 일반 가정에서 이웃과 같이 모여 가정법회를 보는 것을 제안했다. “이웃 몇 집이 모여 법회를 보면 자연스레 아이들도 참여하고 되고 부모의 종교에 따라 자녀들도 성인이 됐을 때 동일한 종교를 믿는 배우자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대 생활패턴에 맞는 법회방식을 제안했다. 또 사찰음식, 선재초 외에 지역 탐방, 영화관

람, 나눔 행사나 가족상담 등을 병행하며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본각스님은 “가족이 사찰에 함께 도착해 각각 다른 공간에서 각자 계층에 맞게 유익한 시간을 보내다 같은 시간에 끝나서 돌아가는 게 기본 조건”이라며 “그러려면 법회를 진행하는 인원과 공간,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중요하고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계층에는 법사와 함께 보조교사가 절실하다”며 “인력과 재정이 확보된 가운데 사찰 책임자의 식견과 능력, 미래불교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투표참여 독려 국민화합 앞장

홍윤식 행자부장관 종단에 요청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홍윤식(사진) 행정자치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해 공정하고 청렴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교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한 홍윤식 장관은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시점에서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공명선거관리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불교계의 큰 도움이 늘 있어왔는데, 이번에도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선거 이후에도 불교계가 앞장서 화정 사상으로 국민화합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그간 이웃종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바르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위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면서 “불자들이 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또 “종단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마라톤 하며 나눔 실천

불자동호회, 자비나눔 성금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자 마라톤 동호회들이 마라톤 대회를 통해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한국불자마라톤동호회(회장 정해선·사진)는 지난 15일 불교108울트라마라톤대회에 앞서 조계사에서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 기금 86만4000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울트라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80명의 회원들이 각각 1만800원씩 적립해 마련한 기금으로, 마라톤 대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불교108울트라 마라톤 대회에는 창원 성불사 주지 승지스님을 비롯해 정해선 회장과 마라톤 참가자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회는 서울 조계사에서 출발해 봉은사와 봉원사, 수곡사, 보광사, 흥국사, 봉곡사, 개운사 등 서울·경기 지역 주요 사찰을 거쳐 다시 조계사로 돌아오는 108km 코스로 진행됐다. 정해선 회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정 아름다운동행 사무국장은 “그동안은 사찰과 신도들이 아름다운동행에 많이 후원을 했는데 어린이집, 중·고생, 마라톤에 참가하는 분들로 기부층이 확대돼 자비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어린이집원장협의회 임원들이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을 방문. 아름다운동행 통해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협의회 이현경 총무,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광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신명숙 회장.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난치병어린이 후원 ‘더 나눔’ 정성 이어져

고운사·NH농협 1000만원 어린이집원장협의회 500원 교계 안팎 심시일반 동참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하는 ‘더 나눔’ 행사에 교계 안팎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에 취지에 공감하며 심시일반 기금 전달을 통해 정성을 보태고 있는 것이다.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호성스님)는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에 더 나눔 행사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NH농협은행이 1000만원을, 조계종 사회복지재



호성스님 고운사 주지



이경섭 NH농협은행장

단 어린이집원장협의회가 500만원을 각각 더 나눔 후원을 위해 기부했다. 전달식에는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과 이경섭 NH농협은행장, 이정환 농협 종로금융센터장, 어린이집원장협의회 신명숙 회장과 이현경 총무가 참석했다.

전달식에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고운사와 농협, 어린이집협의회에서 더 나눔 행사

를 위해 기금을 마련해줘서 감사하다”며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은 “더 나눔 행사와 함께 진행될 고운사의 3000배 정진이 난치병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사회복지재단은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난치병어린이 지원 위한 후원금 전달식과 나눔 콘서트 등을 통해 더 나눔 행사 의미를 사부대중과 함께 나누며, 행사 당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3000배 기도가 이월생중계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본·말사 주지 인사 (4월19일 중무회의)



호관스님 서울 금강암



정효스님 보령 금강암



명선스님 대전 송학사



성본스님 울산 동촉사



한수스님 울산 시적사



선운스님 부산 대덕사



관우스님 제주 고관사

충분산성역화 불사 동참 감사드립니다

한국불교종흥을 위한 조계종충분산성역화불사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모연금은 조계종 총무원 일대를 장엄하는 여법한 불사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기금 모연 명단

(2017년 4월 4일~2017년 4월 18일)
□기금 :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스님) 3000만원 △도산불교문화재피해사찰협의회 2000만원 △서울 승가사(주지 정호스님) 1000만원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호성스님) 700만원 △인전불교회관(주지 일지스님) 500만원 △국제포교사회장 박홍우 100만원 △이규자 10만원 △서울 감로사(주지 현수스님) 5만원 △윤찬목 3만원 △나향란 2만원 △김호준 2만원 △안용진 2만원 △박선숙 2만원 △김인숙 1만원 △김연우 1만원 △이미숙 5000원. (총 7328만5000원)



※ 모연 후 전화(02-730-6690)를 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성역화불사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만화 그리는 스님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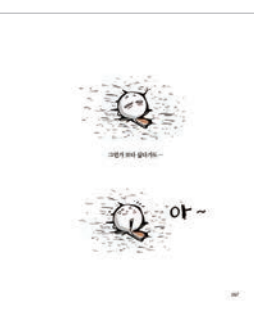
우리랑 비슷해서
우리 맘을 잘 알아줄 것 같은
어라 스님의
마음, 세상, 사람 이야기.

담앤북스 02) 765-1251

어라의 라이프카툰

그림으로 놓고, 그림으로 수행하는 스님의 재미난 일상

자찬 지음 | 288쪽 | 13,000원



좋은 불날에 올지 마라

이 불날, 생명 있는 것들은 모두 대견하다

현진 스님은 백 마디 말보다 자연의 풍광들이 말없이 위로를 건넬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며, 우리를 자연의 자리로 초대한다.

현진 지음 | 288쪽 | 14,000원



사는 게 내 맘 같지 않을 때 힘이 되는 말

범수 스님과 함께 읽는 부처님 말씀

스님이 여러 경전과 논서에서 가려 뽑은 부처님 말씀을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과 잘 버무려 마치 아늑한 스님 방에서 차담을 나누듯 편안히 들려준다.

범수 지음 | 236쪽 | 14,000원



비우는 연습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 58가지 정리법

'세계가 존경하는 일본인100'에 꼽힌 마스노 쇼묘, 승려이자 정월 디자이너인 그는 '전파 정리해야 할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강조한다.

마스노 쇼묘 지음 | 220쪽 | 13,000원